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5호【루계 제2619호】

주체109(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음력 9월 2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일본 도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나는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이 세계만방에 과시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열리는 총련분회대표자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총련분회대표자대회는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력사적단계마다 각계각층 광범한 동포군중의 애국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켜 총련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고 제반 애국과업수행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창출해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대회입니다.

세상에는 해외교포단체들이 적지 않지만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 하부말단기층단위까지 속속들이 꾸려놓고 동포동네호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앉아 대회까지 성대히 개최하는 조직은 오직 우리 총련밖에 없습니다.

지난 기간 분회장들을 비롯한 총련분회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삶의 은인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위훈을 세웠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존엄과 리익, 삶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탄압과 차별행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이역의 가혹한 조건과 환경은 재일동포사회에 언제한번 평온과 안정을 준적이 없었지만 총련분회 일군들과 같은 민족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열혈의 애국자들이 많았기에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빛나는 오늘의 총련이 있고 애국애족의 대하가 그토록 용용한것입니다.

나는 애국위업의 첫 기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총련의 기층조직인 분회를 건설하고 애국애족위업의 크고작은 중하를 자기 집안일처럼 말아안으며 성실한 땀과 헌신으로 사회주의조국과 총련을 떠받드는 억센 고임돌이 되여주신 1세 분회장들을 비롯한 로세대 분회일군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조국과 총련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언제나 깊이 리해해주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변심없이 재일동포사회의 진흥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부흥을 위하여 자신의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총련의 전체 기층조직일군들과 애국적동포들에게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격려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련이 맡고있는 중차대한 임무와 동포사회를 배회하는 끈질긴 도전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이며 애국과업의 직접적집행단위인 분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총련에서는 분회를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모든 기층조직들을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돌로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모든 분회들을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가 구현되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전진하는 힘있는 애국집단으로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분회일군들은 동포들이 선호하고 인정하며 호응할수 있는 만가지 처방을 찾아 선전문화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동포들을 주체의 신념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지닌 열렬한 애국자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분회의 면모를 동포대중주인형, 동포대중참가형으로 크게 일신시켜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한 각계층 동포군중이 애국애족모범창조운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회장을 비롯한 분회일군들은 첫째도 둘째도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들을 애국의 대오에 묶어세움으로써 총련의 대중적지반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모든 분회들을 상부상조의 미풍이 차넘치고 덕과 정으로 굳건히 결합된 따뜻한 동포동네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모든 분회활동을 동포들과의 혈연적련계를 두터이하는데 지향시키고 일군들모두가 우리 동포들의 가업과 생활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며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도모하여 조직안에 동포들을 위한 멸사복무의 기풍이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세계를 무섭게 휩쓰는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로 가슴아픔을 당하는 동포가정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에 또 만전을 기하고 전력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의 모든 분회들을 민족성고수의 거점으로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분회일군들은 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천하지대본으로 여기고 동포자녀들을 총련의 바통,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이어나갈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시간과 품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문화체육활동을 왕성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말과 글을 즐겨쓰고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속과 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운동을 기운차게 벌려 동포들모두가 조선의 넋, 민족의 얼을 지닌 참된 조선사람으로 떳떳이 살아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의 모든 분회들을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는 애국애족의 보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분회일군들과 동포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인민들과 언제나 숨결과 보폭을 함께 하며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애국충정의 기념비를 더 높이 쌓아올려야 합니다.

모든 분회들이 조직밖에 있는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에 응당한 힘을 넣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일본인민들과의 우호친선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재일동포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현시기 총련조직을 강화하는 결정적고리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는 지름길도 기층조직강화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분회를 중시하고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총련의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에서는 말단단위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체계를 더 전진적으로 세우고 분회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주며 분회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총련일군들은 뒤떨어진 분회들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 모든 기층조직들이 애국애족의 광채를 눈부시게 뿌리는 생기발랄한 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역땅 방방곡곡에 끄떡없이 서있는 총련의 기층조직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분회일군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넘쳐나는 재일동포사회를 위하여, 우리 동포들의 더 좋은 생활,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기울여나갈것입니다.

나는 이번 총련분회대표자대회가 분회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는 의의깊은 대회로, 애국애족모범창조운동의 고조기를 열어나가는 전환적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주체109(2020)년 11월 1일 평 양

진정이 담겨지고 인정미가 넘쳐나는 력사에 보기 드문 연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인민을 안으시고 10월의 경축광장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은 국제사회계를 감복시켰다.

웨브싸이트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에 접한 수많은 열람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안고 저저마다 이런 글들을 올렸다.

《**김정은**령도자의 연설은 너무 감동적이여서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다.》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기 인민을 지켜낸 머리숙여 존경할만 한 진정한 령도자》

《**김정은**령도자의 연설은 진짜 정치인의 연설이다. 그이의 연설만으로도 조선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연설을 다시 듣고싶다.》

《**김정은**령도자 세계에서 최고! 참으로 훌륭하시다.》

《**김정은**위원장 만세!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영광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김정은**위원장의 연설은 진실한 감정과 마음을 담은 것으로서 그이의 풍모를 보여주고있다. 찬란한 래일에 조선인민은 더 행복해지고 국가는 보다 부강해질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중국민족대학의 한 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김정은**동지의 연설을 들으면서 뜨거운 눈물이 계속 눈굽을 적시는것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처럼 진정이 흘러넘치고 피와 열이 있으며 인정미가 넘쳐나는 연설은 그야말로 력사에 보기 드문것이며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킨다.

우리같은 외국인들도 이렇듯 격정의 눈물을 흘릴진대 조선인민은 얼마나 감동되였겠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우간다전국항쟁운동기관지 《파블리크 렌즈》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전세계를 휩쓴 악성비루스대란속에서 인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주신 **김정은**위원장의 공적은 력사에 기록될것이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 모든 공을 인민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인민들에게 거듭 고맙다고 하시며 세상이 놀라지 않을수 없는 오늘의 이 승리는 인민들스스로가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선언하신 그이의 연설은 사람들을 감복시켰다.

쓰르비아공산당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편집하였다.

김일성광장으로 기세좋게 나아간 최첨단전략무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의 막강한 군력을 다시금 알게 하였다.

그러나 세계가 본 조선의 힘은 그것만이 아니였다.

경축행사장에서 령도자를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김정은**》, 《결사옹위》의 함성을 웨치고 오직 로동당만을 굳게 믿고 따를 일념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올리던 군인들과 시민들의 모습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홈페지 《조선의 벗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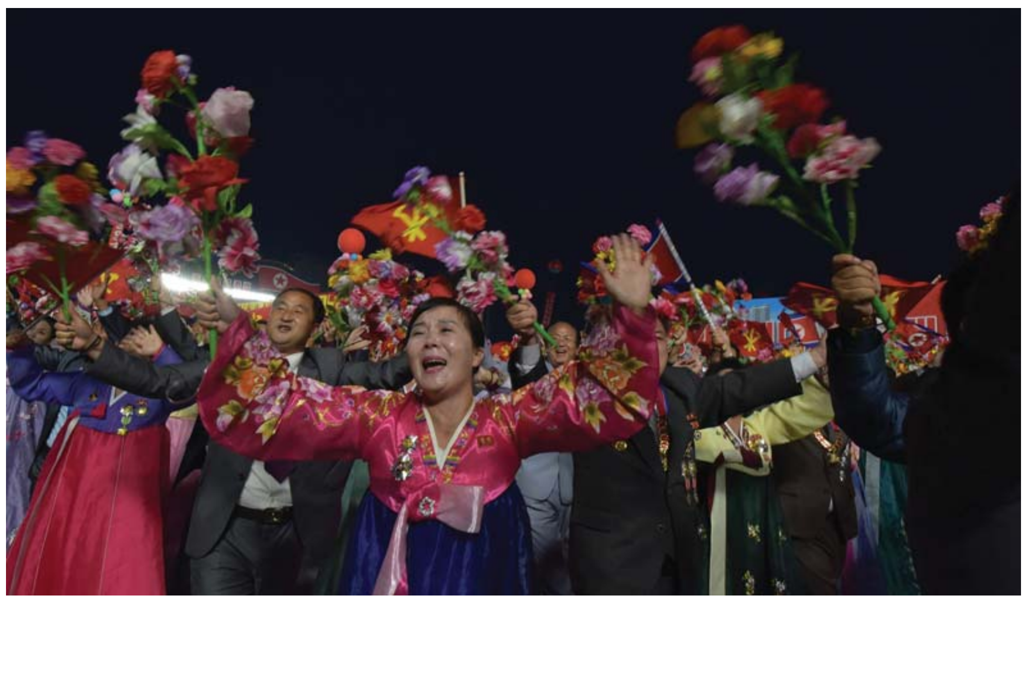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는 만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행사를 통해 과시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이였다.

이 일심단결이야말로 그 어느 나라 당도 만들어낼수 없고 그 어느 나라 인민도 흉내낼수 없는 오직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특허무기》라고 해야 할것이다.

세계는 그 무엇도 조선을 건드릴수 없으며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였다.

본사기자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 진행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이 1일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의장, 송근학부의장 겸 교육국 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혹가이도로부터 규슈에 이르는 각지 총련, 녀성동맹의 분회대표자들, 총련본부와 지부의 전임, 비전임 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을 박구호제1부의장이 랑독하였다.

배진구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장식하시고 당 제8차대회를 지향한 80일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분회대표자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축하문을 보내주시여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을 최상의 영광으로 빛내여주시고 그 력사적지위를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총화기간 각지의 총련과 녀성동맹의 분회들에서는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16》(새 전성기 2차대회)에서 제시된 분회건설방향에 따라 동포들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가고 민족성을 지키며 새 세대를 주역으로 내세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하는 분회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분회사업을 활성화하였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총련과 녀성동맹의 분회장을 비롯한 분회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강령적축하문을 분회건설과 활동의 승리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이번 총련분회대표자대회를 계기로 분회사업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며 애족애국모범창조운동의 고조기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조국에서 보내온 축하록화편집물이 상영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분회조직을 애족애국의 성돌로 굳건히 다지는데서 모범적인 총련 분회들에 새 전성기 애족애국모범분회표창장과 부문별모범분회표창장, 모범분회기발 등이 수여되였다.

또한 지역적거점인 지부를 재건하는 등 애국충정과 단결의 전통을 이어나가는데서 모범적인 지부들에 특별상이 수여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본사기자

방울

군고구마향기

◆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오는 요즘 길거리의 매대들에서는 군고구마향기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고있다. 그 구수한 향기에 끌려 저도 모르게 매대들에 다가가 나도 하나 달라고 하는 사람들중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다. 따끈한 군고구마를 껍질을 벗겨 훌훌 불며 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맘때면 평양의 거리들을 비롯한 각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류다른 풍경이다. ◆ 우리 나라에서 고구마가 재배되기 시작한것은 1700년대 후반부터인데 1900년대에는 남쪽해안지방과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에서 재배되였다고 한다. 황해남도 강령은 고구마가 달고 수분이 적어 고구마의 고장으로 이름났으며 평안도에서도 기온이나 땅의 성분이 고구마성장에 적합하여 많이 재배되였다. ◆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섬유소, 탄수화물, 칼리움, 비타민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암, 당뇨, 고혈압, 로화 등 성인병예방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어느 한 나라의 암연구쎈터는 항암작용을 하는 20종류의 남새들가운데서 고구마를 가장 으뜸가는 항암식품으로 선정하였다. ◆ 고구마는 건강에도 좋지만 맛도 좋다. 고구마를 가지고 만든 전, 튀기, 엿 등은 우리 겨레가 즐겨 먹는 음식의 하나이다. 고구마를 보관하였다가 추운 겨울철에 불에 구워 먹는 맛도 별맛이다. ◆ 민족의 향취어린 군고구마매대가 평양의 곳곳에 자리잡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즐겨 찾는 곳으로 된데도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손길이 어리여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래전에 평양시 곳곳에서 밤과 고구마를 구워 팔아 냄새가 나게 하고 시민들이 군밤, 군고구마를 먹을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것이 평양의 풍경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많은 고구마와 밤을 수도에 보내여 가을과 겨울에 군밤, 군고구마봉사를 활발히 진행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오늘도 거리의 곳곳마다에 꾸려진 군밤, 군고구마매대에서는 김이 문문 나는 군밤, 군고구마를 손에 든채 밝은 웃음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흥그럽게 해주고있다.

빛나는 려정 (1)

일심단결의 화폭을 수놓아오며

지금 세계가 재난과 재해의 련속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침체와 절망속에 이해를 보내고있을 때 공화국에서는 기적과 상승, 비약의 벅찬 동음으로 올해의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나라 력사에서 이 기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나날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눈부신 기적과 번영을 이룩하여왔다.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따라 질풍같이 내달려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이 총폭발된 2016년,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최단기간내에 천하제일강국의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리라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2017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자립경제의 공고성과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떨친 2018년, 자력부강의 진로따라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2019년,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의 광란을 이겨내며 80일전투의 자랑찬 승리로 당 제8차대회장을 마중해가는 2020년.

오직 기적에서 더 큰 기적으로, 상승에서 더 높은 상승으로 비약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질주해온 나날을 돌아보며 공화국인민은 지구의 무게를 안은것 같은 거대한 진리를 다시금 간직한다.

공화국인민을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과 군사적위협, 여러해를 거쳐 들이닥친 엄혹한 자연재해, 세계를 휩쓴 《비루스와의 전쟁》…

하지만 공화국인민이 순간의 침체도 모르고 전진의 보폭으로 달려올수 있은 원동력, 세인이 경탄하는 놀라운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세계가 조선특유의 절대병기라고 경탄한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생명력의 원천이고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담보이라고 하시면서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공화국의 력사는 일심단결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력사이다.

지난 기간은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더욱 순결하고 공고하게 다져지고 더 높은 경지에서 무진막강한 힘을 발휘해온 나날이라고 말할수 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은 령도자께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하늘땅 끝까지 따르는 사랑과 충정의 대화폭이 펼쳐졌다.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사랑과 헌신은 너무도 뜨겁고 강렬했으며 진할줄 몰랐다.

하늘같은 인민을 위해 해빛이 되시고 열이 되시고 어버이가 되여주신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은 2016년에 들이닥친 자연의 대재앙을 행복의 선경으로 밀어던지며 대승리를 안아왔고 조선의 기상과 본때, 잠재력을 시위하며 270여일만에 려명거리를 일떠세웠다.

동해기슭에 고암—답촌철길이 뻗어나가고 또 하나의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인민봉사기지들,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이 즐비하게 솟아났다.

그뿐이 아니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시가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되였고 련이은 자연재해로 한지에 나앉았던 인민들이 수십여일만에 행복의 보금자리에 새살림을 펴는 경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은 전체 인민들에게서 무한한 애국충정을 낳았다.

령도자께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고 령도자의 부름에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뢰성으로 폭발하며 천도개벽, 천지개벽의 력사를 창조해온 공화국인민이다.

현실은 공화국의 일심단결이 그 어떤 제재봉쇄로도, 횡포한 자연의 광란으로도 깨뜨리거나 허물수 없으며 시련이 중첩될수록 더욱더 백배해지는 최강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심단결을 절대병기로, 최강의 힘으로 강화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이신 사랑과 정, 바치신 헌신과 로고는 감동없이는,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고 몇백권의 책에도 기록할수 없는 감동깊은 사실들로 수놓아져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고, 슬하의 천만자식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고생을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며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 맹약을 새기시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애국, 애민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신다.

인민의 웃음을 꽃피우시려 그이께서는 삼지연시와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여러차례나 찾으시였고 인민에게 더 큰 재부를 안겨주시려 대규모남새온실농장이 꾸려질 경성군에 거듭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인민을 위한 마음이 너무도 뜨거우시여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그 짠 소금도 꿀처럼 달게 맛보시였고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서는 구두가 젖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꽃길을 가시듯 흥에 겨워 물고기바다를 거니시며 《바다 만풍가》의 선률을 떠올리신 원수님이시였다.

그런분이시다.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멀고가까운 길이 따로 없고 하늘길, 배길, 험난한 진펄길도 가리지 않으시는분,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땅 끝이라도 기어이 가시려는 열화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빨찌산강행군의 자욱자욱을 끝없이 새겨가시는분이시다.

그 길에는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해기슭의 한끝 신도군을 찾아가신 물결사나운 배길과 감탕길도 있었고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찾아 이어가신 험한 산골길도 있었다.

행복한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멀고 험한 길도 스스럼없이 걸으시고 몇밤을 지새우신 피로에 잠기셨다가도 인민에게 기쁨이 될 창조물을 보시면

만시름이 풀리신듯 환히 웃으시며 힘이 난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몇달전 련이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로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달려가시였고 함경남도의 피해지역현지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회의를 여시고 달리는 렬차에서 공개서한을 한자한자 쓰시며 수도의 로동당원들을 함경남북도 피해복구전역에로 부르신 그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겹겹이 막아선 도전과 장애를 가셔주시고도 모두 건강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민에게 먼저 인사하시고 올해의 위대한 승리를 몸소 마련해주시고도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라고,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나라를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우리 인민이라고 크나큰 믿음과 정을 터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런분에게 어느 누가 매혹되지 않으며 어느 누가 따르지 않겠는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공화국에서 진행된 대정치축전들은 위대한 령도자께 드리는 인민의 꽃다발이며 매혹과 흠모의 분출인것이다.

령도자를 우러러 터치는 인민군장병들의 우렁찬 만세소리, 끝없는 감격과 희열에 넘쳐 꽃다발을 열정적으로 흔드는 인민의 모습에서 세계는 조선의 일심단결의 강위력함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일심단결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굴의 헌신사를 수놓고 인민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견실하게 받드는 혈연의 관계, 사랑으로 승화되고 믿음으로 억세인것이 공화국의 일심단결이다.

공화국의 현실을 보면서 외국의 어느 한 인사는 《조선은 신비스럽다고 할 정도로 난관앞에서도 강의함을 잃지 않고있다. 이 생명력의 원천이 바로 조선에서 말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다. 다시말하여 단순한 기계적, 산수적결합이 아니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한몸을 이루는 유기체이다. 여기에서 수령은 뇌수이고 당은 중추이며 대중은 그에 의해 피와 살을 함께 하는 몸체이다. 수령, 당, 대중이 사상과 도덕의리로 굳게 결합된 이러한 운명공동체를 깨칠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면 인민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조선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법칙이다. 걸출한 수령의 령도에 인민의 힘이면 하늘도 이긴다는 이 격찬속에 공화국의 절대병기 일심단결의 강대함이 있고 불패의 위력이 있다.

진정 일심단결로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조국청사에 더욱 뚜렷이 새긴 긍지높은 나날이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주체조선의 강위력한 힘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온 날과 달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보다 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마중가고있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언제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이 명랑하게 구김살없이 자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시여 일군들에게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불같은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오신 그이의 거룩한 자욱이 있어 이 땅우에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인민을 위한 재부가 날을 따라 늘어나는것이다.

작은 식탁의자 하나에도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한 식당에 들리시여 벽체와 식탁이 잘 어울리지 않는데 대하여 이르신 그이께서는 우아하면서도 섬세미가 나는 목공장식이며 알른알른하게 광택이 나는 색채가 짙은 식탁의자를 눈여겨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자재는 좋지만 설계를 잘하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한 일군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이 의자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려면 직각으로 앉아야 한다고, 직각으로 앉아 어떻게 밥을 편안히 먹을수 있겠는가고, 이런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되지 않을것이라고, 식당의자를 앉기 편안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위인의 유모아

칠색송어의 《결방살이》

몇해전 여름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련어떼가 욱실거리는 야외못을 돌아보신 후 산소발생장으로 가는 자그마한 다리를 건느시던 그이께서는 퇴수로에서 헤엄치는 칠색송어무리를 보시고 걸음을 멈추시였다.

잠시 그 모양을 보시던 그이께서는 희한하다고, 고급어족인 칠색송어를 양어못들에서 길렀지만 지금은 련어의 마리수가 늘어나 퇴수로에서 기른다고 하는데 어제날의 《주인》이 오늘은 《결방살이》를 하고있다고, 칠색송어가 퇴수로에 나와 《결방살이》를 하는것은 종어장에서만 볼수 있는 희한한 풍경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정책관철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양어못들에 련어가 꽉 차니 칠색송어가 《결방살이》를 하지 않는가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본사기자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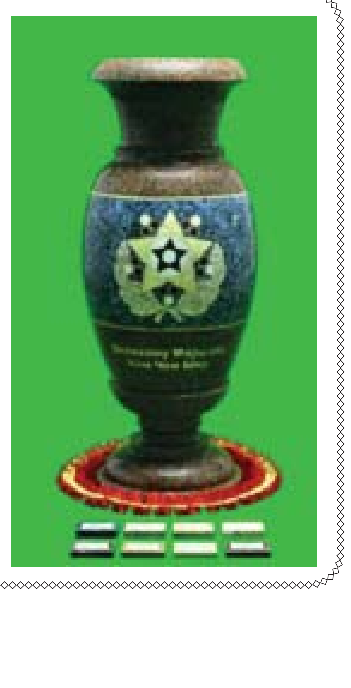
화 강 석 꽃 병

주체102(2013)년 1월 로씨야 우까 싸얀쓰뜨로이유한책임회사 사장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린 선물이다.

그 전해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소식에 접한 사장은 그이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영원한 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심정에서 선물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선물은 여러 나라의 각이한 천연색돌로 만들어졌다. 꽃병중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별이 새겨져있다. 그 아래부분에는 금박으로 《위대한 **김정은**원수께》라는 글과 뒤면에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에게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매혹과 흠모

한없이 숭고한 믿음의 세계

인민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는 한없이 위대하신분, 바로 그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믿음의 세계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것이다.

그이의 믿음은 그 폭과 깊이를 다 헤아릴수 없다.

그이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를 품에 안아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다.

지난 9월 자연의 대재앙의 흔적을 말끔히 가신 강북땅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는 이 땅의 모든 기적의 창조자들이라고, 인민군대의 진정한 위력은 병력의 수나 총포탄의 위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국가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적힘을 지닌데 있다고,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중 제일 큰 자랑이고 자신께서 지니고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언제인가 어느 한 기업소를 찾으시여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이라고 하는것보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고 하여야 정확하다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고 어느 한 과학연구기지를 찾으시였을 때에는 그곳 과학자들을 애국과학자들이라고 값높이 불러주시였으며 어느 교육자가정을 찾으시여서는 자신께서는 이 교육자가정의 선생님들이 자기 사업을 더 잘해나가리라고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것은 인민군군인들과 평범한 로동자, 과학자, 교육자들만이 받아안은 믿음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속에 공화국의 전쟁로병들은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스승》, 《천리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 《숭고한 정신과 넋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으로, 청년들은 청년강국이라는 부름과 함께 세상에 높이 떠올랐다.

얼마전 대성황리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연설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고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겁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하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있지만 공화국인민들처럼 이렇듯 령도자의 하늘같은 믿음속에 사는 인민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은 가장 뜨겁고 변함이 없다.

그이께서는 한번 믿음을 주시면 끝까지 믿고 내세워주신다. 일을 하다가 심중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뉘우치고 일을 잘해나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주시여 영광의 대오에 세워주시는 은혜로운 어버이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못난 자식도 정을 들여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심정으로 이 땅의 천만자식을 품어주고 믿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하기에 누구나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놓으며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안기고 위대하신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 령도만을 따르는것이다.

최 은 정

인민의 나라로 빛나는 조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우에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보란듯이 일떠서고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전례없는 대복구전투가 벌어지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세계언론들이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데웨—로쓰통신, 신문 《자브뜨라》 등 로씨야언론들은 조선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인 후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를 비롯한 회의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험한 진창길을 달려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여 력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조치들을 취해주신 **김정은**령도자는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을 제일로 여기시는분이시다고 칭송하였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현지에서 소집하신데 대해 전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수도 평양의 조선로동당원들에게 함경남북도 피해복구에 용약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력사적인 공개서한을 보내시였다.

그이께서 취해주신 특별조치에 의하여 피해지역들은 인민의 따뜻한 보금자리, 행복의 터전으로 변모되고있다.

조선의 피해복구전투는 단순히 재난의 후과를 털어버리기 위한 경제실무적인 복구건설과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을 일심단결의 힘있는 과시이다.

조선지도부의 제일가는 중대사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며 당과 정부의 모든 로선과 정책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되고있다고 하면서 아랍조선협조리사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인민들이 생활상어려움을 겪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애로와 난관이 아무리 겹쌓여도 국가가 인민을 보살피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한적이 없다.

엄혹한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조선당과 정부가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울려나오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는 말의 뜻을 다시금 음미해보게 한다.

세네갈인터네트신문 《앵빡뜨》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즉시 인민군부대들에 리소재지의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여 리의 면모를 일신시킬데 대한 전투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이의 명령을 받아안고 피해지역으로 달려나간 인민군부대 장병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려 리소재지를 번듯하게 새로 일떠세웠다.

김정은위원장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군군인들의 애국충정에 의하여 강북땅은 대재앙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로 전변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폭우와 강풍피해를 가시고 새로 일떠선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웰남의 인터네트통신 웰남네트는 강북리에 건설된 살림집들은 안팎으로 손색이 없이 아담하게 설계되였다, 자연재해의 흔적이 력력하던 이곳에 선경마을이 희한하게 펼쳐졌다고 보도하였다.

쿠웨이트신문 《알 안바》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국호에도 명기되여있듯이 조선은 인민의 나라이다.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은 **김정은**위원장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고있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국가활동의 기준으로, 집단주의적풍모는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고있다.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과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은 이 나라가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며 조선로동당이 내세우고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음을 확증해주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있어 조선은 인민의 나라, 일심단결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제힘으로 행복의 래일을 앞당겨온다

드높은 기세, 자랑찬 성과들

공화국에서 80일전투의 첫달 목표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공화국에서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더 큰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이 벌어지는 속에 80일전투의 첫달 목표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달성되여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80일전투의 주되는 투쟁목표로 되고있는 비상방역사업에서 강철같은 방역체계가 확립되고 인민사수전의 최전선인 피해복구전역에서 련이어 새집들이경사가 났으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소중한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였다.

새로운 승리를 향한 첫 진군보폭을 기운차게 내짚으며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이 성과는 오로지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중첩되는 도전과 격난을 정면돌파하며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을 무조건 실천해내고야마는 공화국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진함없는 충의심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정신의 발현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에서는 년말까지 80일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중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서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전인민적공격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령도는 전체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을 영웅신화와 기적창조에로 힘있게 추동한 고무적기치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민의 위대한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에로 향한 혁명적대진군에 총궐기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80일전투의 불길드높이 당 제8차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구호를 추켜들고 드세찬 공격전에 더 큰 박차를 가하면서 철야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 80일전투기록장의 페지마다에 승리의 전과들을 련일 아로새기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계보건위기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사업이 더욱 강화되였다.

피해복구전구에서 군민의 대단결과 협동작전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전대미문의 인민사수전이 맹렬하게 벌어지는 속에 전투 첫달에만도 전국적으로 2 000여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새로 건설되였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전의 날과 달을 충성과 위훈으로 아로새긴 수도당원사단전투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투쟁속에 함경남도 홍원군, 리원군, 함경북도 김책시,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창도군, 이천군, 회양군, 판교군, 금강군, 김화군에 멋들어진 문화주택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재해복구전역에서 이룩되고있는 살림집건설성과에 발맞추어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도 철길, 철다리들과 시설복구공사를 전격적으로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림업, 농업, 도시경영, 국토환경보호부문에서 30여개의 다리복구, 70여개소의 강하천정리, 10여개의 저수지공사, 50여개의 관개물길, 구조물복구공사를 결속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이 올해농사의 성과적결속과 다음해 농사차비로 들끓고있다.

각지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벼, 강냉이가을이 전부 결속되고 낟알털기가 74%계선에 이르렀다.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발하여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다음해 농사차비를 위한 가을갈이, 자급비료생산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충성의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기세가 경제건설의 전구마다에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금야강2호발전소가 우리 나라 중소형수력발전소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고 문평제련소의 연제련계통이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개건되였다.

김철과 남흥을 비롯한 대공업기지들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대상공사를 드세게 내밀어 자립경제의 기둥을 든든히 다지고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은정차음료공장, 신의주방직공장에 일떠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공업부문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이 타올라 전력, 철광석, 강철, 석탄, 세멘트 등 주요지표들의 첫달 전투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도 인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방적실, 일반천, 양말, 뜨개옷, 신발 등의 지표별계획을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80일전투의 첫달 대고조진군의 전구마다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령도자의 부름이라면 단숨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는 일심의 대오가 있기에 전인민적인 대진군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뚜렷이 증시해주고있다.

김 명 국

80일전투에 떨쳐나선 공화국인민들

금야강 2호발전소 준공

홍원군에 일떠선 새 살림집들

검덕지구의 피해복구

평양 326 전선종합공장

다음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농장벌

자립경제가 은을 낸다

80일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지금 공화국에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중요지표별계획을 초과완수하고있다는 소식과 함께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들에서 새집들이가 펼쳐지는 소식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 계획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으며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선철과 강철생산량을 늘이고있다. 각지의 탄광들에서는 일석탄생산목표를 어김없이 초과완수하고 세멘트생산단위들에서도 늘어나는 세멘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돌격전이 벌어지고있다.

개성시와 황해북도, 황해남도피해지역들의 새집들이에 이어 은파군 대청리, 함경남도 홍원군, 강원도피해지역 주민들이 새로 일떠선 행복의 보금자리에 입사하였다는 흥겨운 소식도 전해졌다.

들을수록 신심과 랑만을 안겨주는 희소식들이다.

수백세대도 아닌 수천세대의 살림집들을, 그것도 원래의 집과는 대비할수 없게 크고 멋있게 다시 짓는데만 해도 많은 자재와 자금이 들고 공장, 기업소를 만부하로 돌리는데도 원료와 자재를 비롯하여 요구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악성전염병이 휩쓰는 속에 큰물피해, 련이은 태풍피해까지 받아 공화국의 전진도상에 큰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여있다.

그런 속에서도 이런 거창한 피해복구대전이 벌어지고 어디서나 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리고있는것은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은 창건후 오늘까지 자립경제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경제적자립을 떠나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모래우에 집을 세우려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해방후 건국의 첫 기슭에서부터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며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가렬처절한 전쟁으로 모든것이 재더미로 변한 전후의 그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도 완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다른 그 누구의 도움을 바람이 없이 오직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자립의 터전을 더욱 튼튼히 다지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자립경제의 든든한 밑천이 있어 공화국인민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그처럼 간고하고 어려웠던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강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지난해말에는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압살책동에 맞서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탁월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자기의 지혜와 원료, 자재에 의거하여 생산장성의 동음을 높이 울리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마련된 이런 튼튼한 자립경제가 있기에 지금과 같이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공화국은 주저앉지 않고 배심든든하게 거창한 피해복구대전도 펼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들을 전망성있게 내밀고있는것이다.

자립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지금 이 시각에도 힘있게 과시되고있는것이다.

신 기 복

살기 좋고 문명한 고장들로

그전에 《도시처녀 시집와요》라는 노래가 나와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웠다.

벌방지역이나 산간지대를 이르는 시골이 도시의 문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있는 현실이라고 할수 있다.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건설된 삼지연시, 대규모의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과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리념이 구현된 농장마을로 훌륭히 꾸려진 함경북도의 중평남새온실농장 그리고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본보기로 일신한 평양의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그러하다.

몇해전 어느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농촌들을 전변시키자는것이 당의 구상이고 의지라고 하시며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 모든 농장들을 이 농장처럼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모든 농촌들을 문명국의 체모를 갖춘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촌들을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농촌으로 건설하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중평남새온실농장 역시 살림집들이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아담하게 건설되고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들을 그쯘히 갖춘 또 하나의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로 번듯하게 건설되였다.

그런 집, 그런 농촌에서 사는 농민들은 도시사람들 못지 않는 문명한 로동과 생활을 하고있는바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은 나날이 개선향상되고있다.

몇달전 자연재해를 당한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의 피해지역들에 복구된 문화주택들과 마을들도 순수 원상복구가 아니라 문명하고 리상적인 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의 선경으로 새롭게 건설되였다.

지대적특성에 어울리게 정갈하고 멋지게 건설된 살림집들, 문화회관을 비롯한 농촌마을들의 새로운 전경에는 피해지역과 복구현장들을 찾고찾으시며 보다 문명한 생활을 지향하는 농민들의 마음과 문명건설의 요구에 맞게 살림집과 마을형성을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지난날 락후성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볼품이 없는 실태를 헤아리시고 리소재지의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여 리의 면모를 일신시키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지방건설 특히는 농촌건설에서 농촌의 문명한 발전을 가속화하여 계속 그 면모를 일신시키며 현대적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의 문명수준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사회주의문명의 길을 따라 농촌을 도시부럽지 않게.

본사기자 리 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수필

마 음 속 고 백

얼마전 새집들이를 하는 리원군 학사대리에 갔을 때였다. 9월초에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에 의한 해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이 지역이 불과 수십일만에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예로부터 경치가 좋아 선비들이 찾아와 글짓기를 하였다고 학사대로 불리우며 바다경치만 자랑하여오던 이곳에 오늘은 사회주의선경마을이 펼쳐져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정말이지 그 옛날 흥부네 가족들이 은혜입은 제비가 선사한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부럼없이 살았다는 전설은 있었어도 이렇듯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던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궁궐보다 더 멋진 새 집을 꿈 아닌 현실로 받아안게 되였으니 학사대리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그날 도시에 출가한 딸들이 찾아와 이사짐을 싸들고 다시 여기에 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말하는 녀인도, 평양에서 사는 친척들까지 수도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산다고 부러워하니 이 세상 만복을 우리가 다 독차지한것 같다고 하던 로인도 한결같이 격정에 넘쳐 아뢰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였다.

감격에 넘친 그 목소리를 듣느라니 당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장에 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귀전에 울려오는듯 하였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무엇보다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이 가슴뜨거운 말씀은 열병식참가자들의 볼에 격정의 눈물이 흐르게 했고 온 나라 인민들이 크나큰 감동의 울음을 터치게 하였다.

왜 그렇지 않으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로 온 나라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지켜주신분, 진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우리 원수님이 아니시던가.

그런데도 자신의 그 로고는 묻어두시고 탈없이 자라는 자식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친어버이의 심정 그대로 온 나라 인민이 무병무탈한것을 두고 고맙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그이이시다.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고,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더더욱 격정에 울고 송구함에 몸둘바를 몰라한 이 나라 인민이였다.

자고로 어느때, 어느 시대에 평범한 인민들이 자기의 령도자에게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본적 있었던가.

유럽의 한 정치가의 말처럼 《국민은 선거날 하루만 주인이고 일년내내 노예》인 자본주의사회, 통치자와 통치의 대상, 정치가와 정치의 대상으로 량분되는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신 공화국인민만이 누리는 특전이고 특혜이기에 그이의 연설을 받아안은 세계는 눈물없이는 접할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 만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진심어린 모습이라며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해한것 아니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겨안으며 우리 인민은 고마움의 세계가 진정 어떤것인지 새롭게 알게 되였으며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신 대가정의 뜨거운 정을 더욱 실감했다.

진정 령도자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고마운 인민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인민은 령도자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덕에 늘 고마움을 안고 살며 마음속진정을 바쳐가는 공화국의 사회제도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는 말 《고맙습니다!》.

학사대리의 하루는 이 말과 함께 흘러갔다. 아니 끊임없이 창조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 전설을 력사의 갈피에 새기며 온 나라의 하루하루가 이 말과 함께 흘러가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세상만복을 누리게 될 행복의 별천지도 이 말과 함께 펼쳐지게 될것이다.

김 강 혁

시

행복의 우리 집

김 송 림

정녕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눈을 비벼 살펴보고
두손으로 어루쓸어보아도
이게 진정 원수님사랑속에 받아안은
새 삶의 보금자리 우리 집이란 말입니까

솟구치는 격정 누르며
문패걸린 출입문 두손잡고 여니
윤이 나는 부엌세간들이며 아담한 살림방들
집주인 우리를 어서 오라 부르건만
선뜻 들어서지 못합니다
발걸음보다 먼저 눈물이 앞서

얼마전만 해도
순식간에 모든것을 페허로 만든
사나운 태풍, 검푸른 바다
자연의 광란이 몰아온 그 재난으로
졸지에 모든것을 잃었던 우리들이였습니다

허나
어버이의 피끓는 심장의 호소 받들어
온 평양이 불행의 그 홍수를 밀어내며
정의 물결로 파도쳐온 사랑의 대하속에
이미 살던 집과 대비조차 할수 없는
희한하고 덩실한 새 집들 솟아났으니

이런것을 두고
재앙의 갈기가 행복의 파도로 뒤바뀌여
옛 모습 전혀 찾아볼수 없는
새 집의 바다 선경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우에 또한 하염없이 흘러드는
가없는 눈물의 바다 감격의 바다입니다

그 바다속에 풍덩 빠져들어
끓어오르는 가슴들 격정이 치솟아
—경애하는 원수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 말마저 끝맺지 못한채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또 적시나니

하늘같은 이 사랑 이 은혜
무슨 말로 어떻게 다 노래할수 있습니까
따뜻이 감싸주는 운명의 해빛아래
보답의 일념 불타는 우리 맘
삶의 새 터전우에 신념의 기둥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아, 북변땅에 희한하게 솟아난
복받은 땅에 복이 넘치는 집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우리 집이여
황홀한 선경의 이 집은 진정
영원히 안겨살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입니다

《호남민심 얻을수 있을가》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전라도지역 인민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신문 《아시아경제》는 《김종인 호남민심 얻을수 있을가》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래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념두한 호남민심얻기에 나서고있다.》고 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직접 나서서 《5.18은 폭동이 아니라 시민권의 발동이다.》, 《광주시민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면서 낯간지러운 소리를 련일 늘어놓았는가 하면 리명박과 박근혜의 재판이 끝나게 되면 《대국민사과》를 진행하겠다는 여론도 내돌리고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호남민심을 끌어보려는 《국민의힘》의 《구애》놀음은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사실 《국민의힘》이 앞에서는 전라도지역 인민들을 위해 무엇이나 할것처럼 설레발치지만 돌아앉아서 하는짓이란 그들의 존엄을 모독하고 짓밟는 일뿐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지금 전라도지역 주민들은 《5.18력사외곡처벌법》, 《5.18공법단체설립법》, 《5.18유공자례의법》 등의 《국회》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김종인은 이에 대해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다룰것인지 립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요리피탈 조리피탈 하고있으며 남조선 각계가 단죄하고있는 《5.18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도 아직까지 아닌보살하며 오히려 암묵적으로 비호두둔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출범이 불투명하다.》는 리유 아닌 리유로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생떼를 쓰고 자격도 갖추지 못한자들을 위원후보로 내세우다 못해 후보자추천을 질질 끈것도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원래 광주대학살만행의 주범인 전두환이 만들어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하여 군사파쑈독재세력에게 부역하였던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라앉아있고 광주인민봉기를 《그 무슨 사태》, 《폭동》이라고 모독하다 못해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는 망발까지 줴친 정치망나니들이 집결해있는 《국민의힘》패거리들에게는 광주인민봉기자들의 참혹한 희생과 그 유가족들, 전라도지역 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불행 같은것은 안중에 있을리 만무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철우

내부싸움 갈수록 더해

남조선에서 《국민의힘》내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인과 당내 중진의원들사이의 다툼질로 소란하기 그지없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인이 래년에 있게 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보충선거와 관련하여 《확실하게 부각되는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고 하자 중진의원들은 《자해적발언》,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의 발언》, 《대권에 출마하고싶거나 자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싶어하는듯 하는 발언》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무소속의원들의 복당문제, 《국민의 당》과의 합당문제를 놓고서도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고있다고 한다.

무소속인물들을 복당시키고 다른 야당과 합당하자는 중진의원들의 요구에 김종인은 복당은 《당이 지속적변화로 완전한 안정적기반을 구축하면 그 다음에나 가서 볼일》이라며 걷어차고 《국민의 당》과의 합당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얼마나 덕을 보겠느냐, 야당이 《국민의힘》말고 뭐가 있냐며 시큰둥해한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속좁은 리더십》, 《당이 위기이고 비대위지도력이 한계를 보였다.》면서 김종인을 공격하다 못해 《조기전당대회》까지 주장하고있는 판이라고 한다.

김종인의 독선과 독단으로 처리되는 당운영방식을 놓고서도 중진의원들은 《관례적으로 5분씩 발언하고 끝나는 중진련석회의로 무슨 대화와 소통이 되겠냐.》, 《당의 중진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앙앙불락하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김종인은 중진의원들의 불평불만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고 끄덕도 하지 않고있어 바빠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김종인체제》교체를 주장하는 중진의원파와 고집을 부리고있는 김종인을 찾아다니며 달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지만 소귀에 경읽기라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네트언론은 《격화되고있는 내부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면서 권력만 쫓는 야심가들이 모인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제개비네 집안이라고 야유, 조소하였다고 한다.

김영범

남조선대법원이
17년의 중형을 선고

남조선의 대법원이 10월 29일 뢰물수수 및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전 집권자인 리명박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리명박은 전직 《대통령》대우를 모두 박탈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들은 리명박의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13년이 걸렸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누구도 법앞에서는 례외로 될수 없다,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하며 《공수처》설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리명박과 한통속인 《국민의힘》은 이전 군부독재자들도 《특별사면》을 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느 한 야당은 수석대변인을 통해 리명박이 사면된다면 남조선은 수많은 사람을 비탄과 고난에 빠뜨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죄를 무마시키고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아귀지옥이라는것을 널리 알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해나섰다.

남조선의 민주개혁세력들은 리명박을 감옥에 보낸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다, 용서를 받으려면 리명박이 진정한 반성과 국민적사과를 먼저 해야 하며 형기를 절반정도 채운 다음에나 《특별사면》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역도를 비호해준 검찰을 강력히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지난 10월 31일 김경준 전 《BBK》 대표가 립장문을 통해 리명박역도를 비호해준 검찰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김경준 전 《BBK》 대표는 립장문에서 리명박이 응당한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력사의 법정이 열려야 한다고 하면서 2007년당시 자신의 진술을 묵살하고 역도를 비호해준 특별검사수사팀과 검찰관계자의 죄행을 까밝혔다. 이어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격화되는 대립

남조선에서 법무부와 일부 검사들간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지난달말 법무부 장관은 대형금융사기사건에 검찰총장과 그의 심복들이 련루된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그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대형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사건에 련루된 일부 검사들의 부정부패를 은폐한 의혹, 야당정치인들의 협의에 대한 수사를 덮어버리려고 한 의혹을 비롯하여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기때문이라고 한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반발해나서고 많은 검사들이 법무부에 항명을 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일부 검사들속에서는 인터네트에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사법력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있다.》, 《검찰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전해나서고있다는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법무부 장관은 《도전적으로 나온다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하면서 변함없는 검찰개혁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저들의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감찰을 반대해나서고있는 검찰총장과 검사들에 대해 《정치인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있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원이 비발치고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사이의 갈등이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다,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검찰반란》으로 번져질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가
검찰개혁을 요구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간의 첨예한 갈등은 여야당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져 정치권내부가 매우 복잡해지고있다고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문제를 놓고 여야당간의 의견대립이 팽팽해지고있다고 한다.

원래 《공수처》설치는 7월에 완료하게 되였으나 《국민의힘》이 야당몫인 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선출하지 않고 《위헌》론난과 《독소조항》을 운운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온것으로 하여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설치를 지연시킬 경우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보수경향의 인물을 추천하는 한편 여당이 단독으로 《공수처》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반《정부》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있다고 한다.

《공수처설치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권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극력 반대해나서고 12월중에 《공수처》설치를 마무리하자는데 대해서도 대형금융사기사건에 대한 특검도입, 청와대특별감찰관임명 등 정치적문제들을 내걸고 지연책동을 벌리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공수처》설치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있어 정치권이 더욱 복잡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민심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을 《개혁반대세력》으로 비난하면서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에로 가자!》의 구호밑에 검찰개혁을 위한 반보수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후안무치한 섬나라족속들

지난 9월 도이췰란드의 수도 베를린에 일본군성노예상이 세워졌다.

도이췰란드뿐아니라 여러 나라들에 건립된 일본군성노예상은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폭로이며 피비린 죄악에 대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는 일본에 주는 인류의 경고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

도이췰란드에 일본군성노예상이 세워지자 일본당국은 《일본의 기존립장과 량립할수 없는것》,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두덜거렸으며 일본외무상은 유럽에 날아든 기회에 도이췰란드외무상에게 일본군성노예상을 철거해달라고 앙탈을 부리였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본군성노예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일본과 도이췰란드와의 관계가 악화될것이라고 기염을 토하고 일본의 극우언론들도 《성노예》라는 《력사외곡》이 퍼질수 있다, 반일행위의 싹은 초기에 잘라버려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섬나라족속들이라 하겠다.

일본은 세기를 넘긴 오늘에까지 피묻은 칼로 조선반도와 아시아대륙을 란도질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륙하고 짓밟은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만 놓고보아도 마치 해결이 다 된것처럼 뻔뻔스럽게 놀아대며 2015년말 남조선의 이전 보수당국과 날조한 《합의》라는것을 증빙문건처럼 내흔들고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죄가 아니라 《군의 관여》로 둘러치고 배상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몇푼을 던져주고 날조한 그 종이장이 바로 섬나라족속들의 간특성과 파렴치성을 더 명백히 보여주는 실증인것이다.

군국주의의 독기가 풍기는 일본에서는 《조선인을 말살하자.》,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조선인은 조선반도로》라는 타민족배타주의망발이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으며 독도는 《일본고유의 땅》이라는 재침야망이 그대로 아이들의 교과서에 씌여지고있다.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은 《평화헌법》개정과 《자위대》의 무력증강을 낳고있으며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로 군국주의광신자들을 적극 떠밀고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것이 철면피한 섬나라족속들의 력사관이며 《조선인을 말살하자》는것이 군국주의깡패들의 도덕관이다.

그러기에 도이췰란드에 세워진 일본군성노예상을 두고도 저들의 《기존립장과 량립할수 없다.》, 《철거하라.》고 거리낌없이 뇌까리는것이다.

세계의 여론이 수치와 량심도, 인륜도덕도 모르고 군국주의부활에 열뜬 섬나라, 정치난쟁이들의 서식지인 네개의 돌덩어리 일본에 앞날이 없다고 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김수미

일본군성노예상의 철거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는
도이췰란드시민단체들

《세월》호참사관련
국민립법청원 10만명 돌파

남조선언론 《JTBC》, 《KBS》 등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특별법》개정과 《대통령기록물》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언론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참사특별법》개정과 《세월》호참사당시 박근혜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각각 10만명을 넘었기때문에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국민립법청원에 적극 나설것을 강조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지난 10월 31일 한 변호사가 각계층이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국민립법청원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강조하였다.

변호사는 지난 10월 6일부터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과 《대통령기록물》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립법청원이 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6년이 넘었지만 중요한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권한을 강화하고 박근혜의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히려면 10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11월 5일까지 남은 기간에 국민의 힘을 보여줄것을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일제의 무지막지한 산림략탈

조선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세상에 이름이 높았다.

백두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일대, 그리고 《우리 나라의 지붕》이라고도 불리우는 개마고원과 랑림산맥, 함경도일대에는 아름드리나무들이 울창하여 끝없는 원시림을 이루고있었다.

이 풍부한 산림에 눈독을 들인 일제는 조선에 대한 강점초기부터 림업권을 빼앗아내고 이 일대에서 나무를 닥치는대로 찍어가기 시작하였다.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후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그밑에 《영림창》을 설치하고 산림자원략탈에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는 이를 위한 특별조치로 《영림창》의 직원들을 모두 군인으로 구성하고 헌병대와의 련계밑에 일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영림창》이 압록강과 두만강류역의 산림경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통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는 《영림지창》과 파출소까지 두도록 하였다.

1908년 1월 일제는 《산림산야의 소유권을 명백히 한다.》는 구실밑에 이른바 《산림법》을 조작해냈다.

일제는 이 날강도적인 《산림법》을 걸고 불과 2년도 안되는 기간에 림상조건이 좋은 220만정보의 산림을 저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일제는 1910년에 들어서면서 전국적규모에서 이른바 《림적조사》를 진행하고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총 산림면적의 52%를 《국유림》이라는 이름으로 저들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고 1911년 6월에는 《산림법》을 다시 《산림령》으로 고쳐서 조작공포하였다.

이 악법을 리용하여 일제는 《국유림구분조사》라는 간판밑에 쓸모있는 산림들을 모조리 《국유림》으로 등록하고 제 마음대로 략탈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전조선의 산림면적 1 572만정보가운데서 1 300만정보가 《국유림》이라는 이름아래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도 개별적인 일본인과 친일매국역적들의 소유로 되고말았다.

이렇게 조선사람들은 오래동안 사용하여오던 산림리용권마저 일제에게 완전히 빼앗기고말았다.

제1차 세계대전후 일제는 급속히 늘어나는 공업원료들과 함선건조, 건설용자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특히 1923년이후에는 간또대지진때에 당한 재해《복구》를 구실로 조선의 산림자원을 깡그리 략탈해갔다.

조선의 주요산림자원지대들인 장진, 무산, 강계, 풍산(당시), 갑산, 후창(당시) 등의 원시림은 삽시에 거덜이 나고 산과 들은 벌거숭이로 화하였다.

일제는 략탈한 나무들을 빨리 효과적으로 운반해가기 위해 산간지대들에 철도, 도로, 제재소들을 건설하였으며 경찰을 동원하여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산림자원략탈은 1930년대에 이르러 대륙침략전쟁을 준비하면서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준비를 위한 이른바 《개척》을 벌리면서 북부조선일대의 무진장한 산림을 대대적으로 략탈해갔다.

뿐만아니라 부족되는 군수용연유를 송탄유로 대신하면서 산들에 있는 잔솔나무에 이르기까지 다 찍어 기름을 짜냈다.

심지어 일제는 《전시수요》의 긴급보장이라는 명목밑에 조선의 명승지와 고적들, 사찰주변에 있는 수백년 묵은 나무들과 농촌마을주변에 심은 관상용나무들까지 깡그리 찍어갔다.

일제가 1902년부터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7월까지의 기간에 략탈해간 용재는 무려 2억 1 928만 2 347m^3에 달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일제는 땔나무로 5억 2 282만m^3, 숯생산용나무로 2 739만m^3를 략탈해갔다.

일제는 날강도적인 산림자원략탈로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엄청난 자연재해와 인적, 물적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조선의 림업발전을 심히 억제하였다.

력사적사실들은 일제의 야만적인 산림자원략탈, 파괴죄악을 세상에 고발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후대사랑의 결정체 옥류아동병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문수지구에 자리잡은 옥류아동병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 2013년 10월에 개원되였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병원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도안은 물론 매 방의 비품들, 유희기구, 홀에 놓을 의자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시였으며 병원의 관리운영, 치료사업의 정보화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병원의 이름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령도자의 뜻을 받들고 건설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건설공법을 받아들이고 립체전을 벌려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옥류아동병원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지난 7년동안 옥류아동병원에서는 수십만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으며 각지 의료일군들에 대한 수천여회의 먼거리협의 및 강의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건물의 형식과 내용에서 주체성과 인민성의 요구를 갖춘 옥류아동병원은 환경이 동심에 맞게 꾸려졌을뿐아니라 모든 설비들이 최신식으로 갖추어져있다.

쟁쟁한 실력가집단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전자연구소는 훌륭한 과학교육성과들로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관록있는 연구집단이다.

이곳 연구소가 교수형의 광학강좌로부터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이 일체화된 연구형의 빛전자연구소로 새롭게 전환된것은 몇년전이다.

그런데 지금은 매 연구실과 연구조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무시할수 없는 권위를 지닌 학술중심, 관록있는 연구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여러명의 20대박사와 40대의 젊은 교수를 포함한 교수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된것은 이 연구소의 저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연구소에는 2018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교수 박사 김남철실장도 있고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서 토론하는 영예를 지닌 교수 박사 임성진선생도 있다.

연구소인원의 절반이상이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자랑도 가지고있다.

2년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인명사전에 2018년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 등록된 3명이 모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나왔는데 그들중 2명이 바로 이 연구소에 있다.

최근년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된 김일성종합대학의 론문들중에서 물리학부가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된 론문의 절반정도가 이곳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한다.

빛전자연구소의 특출한 실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도 발휘되고있다.

몇개 나라의 독점물로 되여있는 통신기술개발과 세계적수준의 레이자투영기술확립, 정밀측정기술개발성과, 량자정보학부문의 연구성과들…

연구소가 오늘처럼 관록있는 집단으로 일약 떠오르게 된것은 이곳 교원, 연구사들이 자신들을 세계적인 인재들을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기때문이다.

특히 교수 박사인 김철수소장의 노력이 자못 컸다고 한다. 그는 나라의 물리학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한개 분야를 자신이 국가앞에 책임졌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밤낮으로 사색과 탐구를 이어왔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룡남산의 교육자들부터가 세계적수준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것이 곧 그의 목표이고 실천이였다.

하기에 그는 언제나 참신하고 독특한 교수방법들을 부단히 창조하고 강의에 구현하는데서 학부와 대학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오늘도 연구소의 교원, 연구사들은 첨단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그 어떤 약품도 마음먹은대로

— 정성제약종합공장에서 —

《정성제약종합공장의 GMP수준은 세계적수준이다. 특히 수액약품공장의 GMP수준과 약품검정수준이 매우 높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약들도 이 공장에서 검정해야 할것 같다.》

이것은 지난해 1월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평양의 통일거리에 위치하고있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을 돌아보고 한 말이다.

유엔산하 보건에 관계하는 전문기구의 대표가 한 이 말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는 헌장에서 《모든 나라 인민들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도록》 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정성제약종합공장에서는 효능이 높고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에 도달한 각종 약들을 연구개발하고있다.

공장에서는 해열제, 진통제, 항생제를 비롯한 상비약품들과 여러가지 악성 및 전염성질병들을 예방하고 건강장수에도 좋은 다양한 약품들을 많이 개발생산하고 있다.

최근 몇해동안 공장종업원들은 《단순히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의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하면서도 세계적수준에 도달할수 있는것이라야 당당히 우리의것이라고 말할수 있다.》는 확고한 관점밑에 GMP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들은 수지주머니수액생산공정을 확장하고 통합생산체계와 여러 생산공정들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또한 의학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어느 한 나라의 독점물로 되여있던 약품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해낸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새 제품들을 개발하였다.

공장에서는 그 어떤 제품이나 원료도 마음먹은대로 분석할수 있는 튼튼한 연구력량과 현대적인 검정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의약품들은 여러 전람회, 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제약단위들에서까지 호평을 받고있다.

언제인가 공장을 돌아본 유럽의 이름있는 제약회사의 한 성원은 《조선에 GMP가 이렇게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제약공장이 있는줄 몰랐다. 정성제약종합공장과 같이 GMP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은 제약공업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서유럽에도 불과 몇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의약품들을 남의것보다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해낼수 있다는 자부심에 넘쳐있는 공장의 종업원들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우리 공장, 우리 제품

《은방울》 손풍금, 독특한 음색

평양악기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은방울》손풍금은 음악전문가들과 손풍금애호가들속에서 호평이 자자하다.

《은방울》손풍금은 풍량의 기계적장치가 민활하고 음색이 부드러우며 전체적인 울림이 고운것으로 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다.

중국과 로씨야, 유럽 등지에서 진행된 여러 박람회들에서 《은방울》손풍금은 정확한 음정과 독특한 음색, 매력적인 외형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2018년 10월 중국의 상해에서 진행된 국제악기전람회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은방울》손풍금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손풍금들에 결코 못지 않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멋진 형태와 아름다운 음질로 하여 수많은 음악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은방울》손풍금!

여기에는 우리의 손풍금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으로 더욱 완성시키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 공장종업원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평양악기공장에서는 인민들이 선호하는 《은방울》손풍금을 더 많이, 더 질높게 생산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해외동포소감

그윽한 향기

나는 조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다. 사업용무나 혹은 사사용무로 나는 지난 기간 조국의 많은 곳들을 다녀왔다.

조국방문의 나날 많은 녀성들과 접촉하게 되였고 또한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국녀성들의 진정한 모습을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알게 되였다.

겉보기에는 소박하고 수수하여도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조국녀성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나는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많고도많은 사연중에 말하고싶은것은 《처녀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강선의 장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18살꽃나이에 부모없는 일곱명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장정화의 작은 가슴에는 모성애를 초월한 사랑,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다.

장정화처녀가 부모없는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된것은 그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현장에 지원나갔다가 세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을 련합기업소에서 키우고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그날부터였다고 한다.

그날 장정화는 부모없는 세명의 아이들을 자기가 데려다 키운다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걱정을 덜어주고 강철생산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고 한다.

그날은 장정화처녀 인생의 전환기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그후 장정화는 세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4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을 또 자기 집에 데려왔다.

이렇게 되여 그는 일곱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였다.

사실 나도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키운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있다.

아이들은 하루 세끼 먹여주고 재워주는걸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나라의 훌륭한 인재들로 키우는데 알게 모르게 품을 들일 일들이 참으로 많다.

처녀로서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였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연약해보이는 처녀이지만 그는 결국 강한 어머니가 되였다.

세상에는 부모잃은 아이들도 많고 어머니들도 많겠지만 이같은 감동적인 사연들이 우리 조국에서는 어찌하여 흔히 볼수 있는 일로 될수 있을가?

장정화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있을가?

나의 호기심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 처녀의 인정미와 마음씨를 비단에 비겨야 할가, 꽃에 비겨야 할가, 어떻게 그런 생각과 결심을 내리게 되였을가. …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렬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사랑, 그 향기의 원천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하나의 대가정,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 있음을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화창한 봄경치보다 더 아름답고 봄향기보다 더 그윽한 숭고한 인간미, 장정화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은 김정은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미풍이 아니겠는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장
김영희

새소식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천연향료생산의 공업화토대 마련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평양향료공장이 일떠섰다.

천연향료추출, 향료배합, 주입 및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통합생산체계를 이루고있는 공장에서는 향료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되여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내는 여러가지 천연향료, 식용향료, 공업용향료를 생산하게 된다.

향료의 국산화와 향료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인민생활에 절실한 향료를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혜산김치공장 새로 건설

량강도에 혜산김치공장이 새로 일떠섰다.

공장에는 통배추김치, 양배추김치, 깍두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김치를 생산할수 있게 절임실, 배추, 무우자동공급기, 용기세척기 등이 갖추어져있다.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맛좋은 김치를 더 많이 생산하여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여러 품종의 과일나무 육종도입

량강도에서 북부고산지대에 적응된 사과, 추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품종의 과일나무들을 풍토순화시켜 널리 재배하고있다.

도안의 과학자들은 북부고산지대에 맞는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수확성이 높고 추위견딜성이 강하면서도 맛과 향기가 좋은 과일품종들을 육종해내였다.

이들이 육종한 과일나무들은 도안의 많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여 봄이면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지는 풍경을 펼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해발고가 높은 삼지연지역에 뿌리내린 사과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것이다. 도에서는 북부고산지대의 기후풍토에 적응된 과일품종들을 확대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있다.

본사기자

단풍든 모란봉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다양한 료리기교동작을 펼쳐보여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현대적인 급양 및 편의봉사시설을 갖춘 종합적이며 다기능적인 봉사기지인 류경관이 있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되여있는 류경관에는 각이한 형식으로 꾸려진 식사실들과 상점, 철판구이집, 물놀이장, 리발실, 미용실, 체육운동실, 료리전습에 필요한 시설 등이 갖추어져있다.

나무장식재와 대리석, 타일, 거울 등 마감재료들로 장식된 류경관의 내부는 그 어느곳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어떤 식사실은 옛날 농촌 집뜨락에 앉아 식사하는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식사실들은 소나무 우거진 바다가의 백사장에 들어서는듯 한 정서를 주기도 한다.

이곳에서 제일 특색있고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곳은 철판구이집이다.

철판구이집에서는 손님들의 눈앞에서 료리사가 여러가지 육류와 해산물을 가공하여 봉사해주고있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흥미와 구미를 돋구기 위해 료리사가 매 료리들의 맛과 영양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후추통과 칼, 포크 등을 가지고 교예사처럼 기교를 부리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철판구이의 절정은 료리에 술을 붓고 불을 달아 불길이 천정으로 치솟게 하는것이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님들은 탄성을 올리며 박수를 친다.

함인숙봉사부원의 말에 의하면 료리에 술을 부어 불을 달면 음식물의 잡내를 없애고 맛을 좋게 해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철판구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는 대단하다.

이곳을 찾았던 해외동포들도 류경관의 철판구이가 맛

이 좋다고, 그래서 일부러 이곳에 오군 한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한번 오면 또 오고싶고 들어서면 떠나고싶지 않은 류경관이다.

이곳 료리사들은 료리는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창발성을 발휘하여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료리들을 특색있게 봉사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김 진 혁

향수사용의 이모저모

향수는 여러가지 효과를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있다.

실내안의 공기가 좋지 않아 이상한 냄새가 날 때 전등에 향수를 약간 친 다음 전등을 켜면 점차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옷에 향수얼룩이 생기면 시간이 오래갈수록 잘 지워지지 않기때문에 인차 수건을 접어서 얼룩이 진 자리밑에 받치고 솜에 알콜을 묻혀 닦으면 없어진다.

옷에서 향기가 오래 풍기게 하자면 옷을 다림질할 때 천이나 흡수가 잘되는 종이를 한벌 깔아놓는다. 거기에 향수를 살짝 뿜어주고 다림질하면 옷에서 오래동안 좋은 냄새가 난다.

일부 사람들이 향수를 머리와 옷깃에 치는데 그보다 손목, 귀뒤부분에 치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맥박이 뛲에 따라 향기가 고루 펴지게 된다.

녀성들이 여름에 치마를 입을 때는 무릎마디에, 남성들이 넥타이를 맬 경우에는 넥타이끝 뒤면에 치면 좋다.

머리를 감을 때 마지막으로 머리를 헹구는 물에 향수를 한두방울 뿌리고 헹구면 하루종일 은은한 향이 풍겨나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본사기자

안마법 몇가지

◇ 다리안마법

두손으로 한쪽대퇴를 적당한 힘으로 안마한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발뒤축까지 안마하고 다시 우로 향해 안마한다.

그 다음 다른 다리를 같은 방법으로 안마하는데 10~20번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다리근육과 걷는 능력이 증강되고 다리정맥노장, 다리부종, 다리의 위축이 개선된다.

◇ 잔등안마법

사람의 잔등에는 척수신경이 많아 안마에 의하여 잔등신경이 자극받으면 순환이 촉진되고 신경내분비계통이 작용한다.

잔등을 안마하면 불면증, 변비,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병에 효과가 있다.

로인들이 잔등을 오랜 기간 안마하면 장수한다고 한다.

더운물에 수건을 적시여 우로부터 아래로 반복하여 약하게 마찰하는데 풍부혈로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추순서로 시원한 감각이 있을 때까지 한다. 하루에 1~2번, 한번에 3~5분간 진행한다.

본사기자

《피부과학전서》

치료예방의 전문화수준을 높여

보건성피부전문병원 연구사들과 의료일군들이 지혜를 합쳐 도서 《피부과학전서》(1~4권)를 출판하여 피부과학의 전문화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더욱 개선해나가고있다.

피부과학총론, 피부염증성질병, 피부부속기질병, 피부감염증, 물리적인자에 의한 피부질병, 피부종양, 전신질병과 피부로 구성된 도서 《피부과학전서》에는 피부의 발생으로부터 해부조직, 기능, 피부병의 증상,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의 총론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다.

국내피부과학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종합하고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다른 나라들에서 류행되고있는 질병들을 서술한 도서 《피부과학전서》는 환자치료와 예방, 과학연구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음식

소꼬리보신탕

소꼬리보신탕은 맛이 구수할뿐아니라 영양효과도 아주 높아 몸보신에 좋은 음식으로 되고있다.

소꼬리는 지방함량이 47.1%이며 소고기에 비하여 열량은 3배나 높다.

밤과 대추를 비롯한 여러가지 보양음식들을 넣어 만든 이 탕은 영양강화작용, 성장촉진작용, 조혈작용을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할 때, 간질환이 있을 때, 허약할 때 소꼬리보신탕을 먹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식감으로 소꼬리 300g, 밤 30g, 대추 30g, 은행 30g, 다진 파 20g, 다진 마늘 5g, 소금 4g, 간장 3g, 후추가루 0.5g을 준비한다.

소꼬리는 찬물에 안쳐 푹 삶는다. 삶아낸 소꼬리는 마디마디 토막을 내고 국물은 밭아놓는다.

소꼬리를 삶아낸 국물에 다진 파와 마늘, 대추, 밤, 은행, 토막낸 소꼬리를 넣고 다시 끓인 다음 소금, 간장, 후추가루로 맛을 들여 그릇에 담는다.

이렇게 하면 푸짐한 소꼬리보신탕이 완성된다.

본사기자

사화

최무선이야기 (3)

최무선은 기뻐서 다가앉으며 말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구는 우리 두 나라의 공동의 적이니만치 어디까지나 힘을 합쳐 쳐야 합니다. 놈들의 본거지는 우리 나라에서는 가까울뿐만아니라 잘 알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유리한 립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화약이 없단 말씀이지요?》

리원은 최무선의 말허리를 끊으며 얼른 물었다.

《그렇습니다. 일찌기 원나라에서 그 비법을 전수(지식이나 기술기능 같은것을 가르쳐서 넘겨주고 익혀주는것)받고저 하였으나 극비로 취급하므로 어쩔수 없었습니다. 원나라의 도성과 귀인들은 대륙깊이 있는지라 왜구의 피해를 덜 받았으니 우리의 이 절실한 사정을 알수 있겠습니까?》

최무선은 숙연히 말을 끊었다. 또다시 두사람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한참 지나 리원이 무엇을 결심한듯 결연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뜻을 알만 합니다. 당신네 나라에는 화약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이 없고 우리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비로 되여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가 공동의 적을 물리치자면 반드시 화약도 함께 리용해야겠으나 사정이 이러하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나에게 화약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목숨으로 비밀을 지키리다!》

최무선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쳤다.

리원은 놀라서 한참동안이나 상대의 눈을 뚫어지게 보다가 말했다.

《나도 화약을 만드는 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남들이 수상히 생각할테니 그만 이곳을 떠납시다.》

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최무선은 밤을 타서 몰래 리원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가족들에게 엄격히 비밀을 지키도록 한 후 주안상을 갖추어 각별히 대접을 하고나서 사랑방에 조용히 마주앉았다.

두 나라 청년은 한결같이 왜구를 무찌를 이야기에 마음이 통하였다.

그러나 리원은 화약을 만드는 전 과정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본시 염초상인이기때문에 염초를 구워내는 방법밖에는 알지 못하였던것이다.

리원은 말을 마치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높으신 애국지성에 반하여 내가 도와드리는것이 너무 적다보니…》 하고 손을 잡고 진실로 미안한 뜻을 보이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크게 힘이 됐습니다. 나는 반드시 나머지 방법들도 연구하여 화약을 만드는데 성공하고야말겠습니다. 왜구의 씨를 없애고야말겠습니다.》

두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밤가는줄을 몰랐다. …

다음날부터 최무선의 고난에 찬 연구가 시작되였다.

염초는 수월히 얻을수 있었다.

그는 자기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집들의 마루밑을 뒤져서 하얗게 깔려있는

먼지들을 긁어모았다.

이렇게 모은 먼지를 물에 탄 다음 한참 끓여서 남는 것이 곧 염초로 되였다.

이 성공은 최무선에게 커다란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화약을 만드는데 있어서 초보적인 것이였다. 어려운 일은 앞에 있었다.

최무선은 희망을 가지고 차츰 본격적으로 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는 화약을 기어이 만들 작정으로 자기 집의 방 한칸을 내였으며 이러저러한 실험도구들을 고안하였다.

최무선은 관청의 일이 끝나기 바쁘게 돌아와서는 이 방에 들어박혔고 그야말로 오직 한가지, 화약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정열을 기울였다.

부친 최동순과 집안사람들은 물론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다.

어린 아들과 젊은 하인은 하얀 먼지와 류황, 반묘 등을 구해오기에 분망하였다.

최무선은 염초에다 류황, 반묘 등과 불이 잘 붙는 물질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배합해보면서 실험을 거듭하였다.

그의 피타는 노력으로 화약연구가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일무렵 왜구들이 례성강을 거슬러올라오면서 옹진지방에 불을 지르고 략탈을 감행하였다.

개경의 바로 턱밑까지 기여든 왜구의 만행은 인민들을 불안케 하였으며 뜻있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달아놓았다.

최무선이또래의 젊은이들은 앞을 다투어 방어군에 참가하여 평양성으로 향하였고 또 어떤 패들은 례성강으로 달려나갔다.

최무선도 물론 그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자기가 고심하던 연구를 잠시 중단하고 직접 손에 칼을 들고 왜구와의 싸움에 나설것을 결심하였다.

속담과 뜻

❖ 공부는 눈감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일생 끊임없이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아는것이 힘이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만 사업과 생활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음을 이르는 말.

❖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을 알아야 한다.

하나를 가르치려면 그것을 헤아려 더 많은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